재일대한기독교회  
교토교회 여성회

교육부 소식　　제15호　　　　　　 2023년 ８월

성경의 배움터

**『신앙생활의 목적』 마태복음 10장 32-33절**

고대한 전도사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위로 받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정을 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로 서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태도, 행동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님 뿐만이어야 합니다.

**♪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우린 서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를 알아가고 그분의 끝없는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려면** -박정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1~2)**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서로 하나되게 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지 말고 이웃에게 ‘선과 덕’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능에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할 수 있으나 성도들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 : 6~7)**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곤하고 목마르고 고치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억울하게 핍박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견뎌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옳음을 증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성경은 2000~3000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21세기의 오늘날에도 실제적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공부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에의 위로를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인내하고 연단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도가 하나됨은 예배 안에서 가능한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비판하고 나뉘고 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나와 관계없는 교회의 광고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자발적 결연을 하게 됩니다.

인내를 하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고백이 되지만, 인내를 안하면 무관심 냉소적이 되어 ‘다 해봤는데 상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내하고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포용으로 손잡아주면 바뀝니다.

가정에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열매가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네모와 믿음이 약한 세모가 합치면 동그라미가 되어갑니다. 모난 각들이 다듬어집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되게 합시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시시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이웃을 즐겁게 하고, 함께 기뻐하는 군사가 되어 one body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김영아-

최근에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바울 이래 최고의 선교사 스텐리 존스는69세 때 그만 중풍으로 쓰러져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 했다고 합니다. 선교지였던 인도에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고령인 데다가 뇌혈관이 터져 의사도 포기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스탠리 선교사는 담당 간호사를 불러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몸이 마비되고 또 내가 말을 잘 할 수 없으니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 굿모닝 대신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라고 말해주십시오.” 간호사는 그의 요구대로 이튿날 아침 그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라고 말했고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무슨 병이 낫겠느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스탠리 선교사님은 중풍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힘 덕분이었고, 자신의 언어로 그 믿음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 출처: prayer Academy Ministry 강은혜 선교사님」

  

* **같이가는 아름다움** -박정진-

우리는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형제를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형제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와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덕으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만이 옳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교회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신앙에 있어 의심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 내려놓은 자유가 같이 가는 아름다움입니다.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울어줌으로써 성도간의 형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아들은 부모에게 매 맞는 친구가 부럽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상처받지 않고 서로간에 힘들어도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compassion(측은지심, 동정, 동정심, 연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 : 15)**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compassion 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며,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 <아주 먼 옛날> ♪**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



♡♡ 에베소서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 다음 여성회 성경공부는 9월5일(화) 10:30~12:00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직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 메일 주소 [mison3252@gmail.com](mailto:mison3252@gmail.com)

교회 연락 (075-311-5051)/ FAX (075-313-3778), 우송 등

교육부장 임미선